

제3회 '올해의 작품상' 수상자

(가나다순)



'수하에 가다' / 남태희

- 등단 : 2008년 <수필문학> 등단
- 현재 : 부산문인협회, 수필문학부산작가회, 부경수필문학회 회원

아침, 문자로 올해의 작품상 수상을 연락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잊고 있었던 단풍잎처럼 얼굴이 붉어집니다. 제게 주신 뜻밖의 선물이 베풀어주시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글을 쓰면서 내안의 많은 사람들과 자신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정작 한사람에게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숙제를 풀 순간이 제게 빨리 다가오려는지요. 처음 해본 돌발 같은 글 힘내라고 응원해주신 심사위원님과 함께 공부한 문우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림자 놀이' / 이종민

- 등단 : 2010년 <한국수필> 등단
- 현재 : 부산수필문인협회 회원, 효원건축사사무소 소장, 건축가, 수필가

모든 게 과분하기만 합니다. 멋모르고 글의 세계로 뛰어들었는데는 지난 3년 여러 문인들 틈에 끼어 글 쓰는 흥대를 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책을 받아보고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 어느 선생님의 얼굴이 보고 싶어지고, 그 분이 쓰신 글을 찾게 되고, 후 만나서 이야기 한마디를 나누어 볼 기회라도 생기면 더 큰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한 분 한 분 성함을 익힌 것이 서둘러 이룬 글보다 오히려 더 큰 수확이었습니다. 상의 의미가 받는 사람의 연륜과 깊이에 따라 제각기 다를 줄 압니다. 세상의 넓이를 짐작해 보았습니다. 아직 접시의 크기밖에 지니지 못한 저의 경우에는 절차탁마의 수순이 남았다는 경고임을 알겠습니다. 단체를 살려주시는 여러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쓰레기를 버리며' / 장혜주

- 등단 : 2003년 <문화예술> 신인상
- 현재 : 부산문인협회 부산수필가협회 회원, 참수필 동인

가게에 풍성하게 놓인 가을 과일들을 보며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했는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골똘하게 생각한다.

여러 날 글쓰기에 소홀했던 자신을 돌아보았다. 어떤 날은 마음이 너무 격해서, 또 어떤 시간에는 허망한 말장난 같아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문장에 분칠하려고 하는 자신의 허영을 발견하고, 그나마 조금씩 쓰던 글을 저만치 밀쳐두고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데 저리를 두고 바라보아도 글은 여전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이다.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 어디서 사는 재미를 찾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다시 친해지자고 작은 목소리를 건넌다. 부족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 가슴 발을 파고 수필의 씨앗을 다시 심고, 나는 초등학교 1학년처럼 다시 수필을 쓰려고 한다. 가슴 두근거리며 내가 가게 될 낯선 길들을 상상한다.

▶ 예선 통과 작가

강규인, 김임선, 남태희, 문경희, 박영란, 박종길, 배승원, 소상보, 송경자, 안귀순, 염귀순, 유태연, 이원우, 이종민, 정한일, 장혜주, 정인조, 허정, 홍미영 (가나다 순)



'Y'여사 봄날은 갔다' / 박영란

- 등단 : <에세이 문학> 등단
- 수상 : 전국중앙일보 신춘문예
- 현재 : 에세이부산 회원

• 수필집 : <바람이 데려다 주리> 등 '조감'을 쓸 기회가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다. 이 가을 감나무 가지에 울망줄망 매달려 있는 감을 볼 때처럼, 누군가가 내 글을 그런 예쁜 눈으로 봐주었다는 게 흐뭇하다. 작품 <Y'여사, 봄날은 갔다>는 어느 봄날 도서관을 다녀 온 이야기다.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영화 <생명과 열정 사이>를 보고, 영화의 내용과 만개한 벚꽃들이 눈부시게 휘날리는 날 필가가 가을 특 지는 날이었다. 그런 애듯한 날이 다시 기억되고, 올해의 작품상이 되었다는 것. 수필의 재미, 그 역설은 이런 엉뚱한데도 있는지 모른다. 파사로운 창가에 앉아 '수필'에 소박한 감정을 가져 보는 시간- 그 긍정적일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최대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얼굴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겠지만 필자의 좁은 소견은 생명과 직결된 먹는 즐거움이라 여깁니다. 예오라지 일에 미쳐 지나온 평생 오매불망 두 여인을 짝사랑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연인은 안풍치야요 또 한 여인은 수필 창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첫 번째 짝사랑연인이 글 씨앗이 되어주어 틀니의 일생이 탄생되었다 봅니다. 심사위원들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모든 문우님들께 짝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덴의 연가' / 장한일

- 등단 : <월간 에세이> 초회 추천
- 현재 : 한국문인협회, 부산수필문학회 회원, 지산대 임상외래교수 위촉

인간의 최대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얼굴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겠지만 필자의 좁은 소견은 생명과 직결된 먹는 즐거움이라 여깁니다. 예오라지 일에 미쳐 지나온 평생 오매불망 두 여인을 짝사랑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연인은 안풍치야요 또 한 여인은 수필 창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첫 번째 짝사랑연인이 글 씨앗이 되어주어 틀니의 일생이 탄생되었다 봅니다. 심사위원들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모든 문우님들께 짝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심·사·평]

벌써 3회째 실시하고 있는 '올해의 작품상'으로 인해 「부산수필문예」에 실린 작품들의 문학적 수준이 전체적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안팎의 평들이 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오로지 작품으로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부산의 수필가라면 누구나 한번 이 작품상을 받고 싶어 하는 상이 되었다. 2012년도 <부산수필문예> 상·하 권(11호 및 12호)에 실린 105편의 수필을 심사 대상으로 하되, 부산에 전혀 연고도 없는 외부인사 2명의 심사위원에게 예심을 맡겨 각 10편씩 20편을 뽑고 본심에서 5편을 골랐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모두 19편이었다(중복 추천 1편). 여기서 작별 수상자 작품 1편과 심사위원 작품 1편 그리고 문학상 수상자 작품1편은 제외시켰다. 최종 대상작품 16편을 본심 심사위원 세분이 각각 독해하는 과정과 점수 평가 과정을 거쳐 수상작 5편을 선정했다.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지만 문학성, 문장력, 완성도 등을 고려해서 남태희('수하에 가다'), 박영란('Y'여사, 봄날은 갔다'), 이종민('그림자 놀이'), 장한일('덴의 연가'), 장혜주('쓰레기를 버리며')(가나다순) 작가들의 작품을 어렵게 선정하였다. 선에 든 다섯 분의 작품들은 수필의 진정성, 깊은 사유, 가슴 뭉클한 감동, 아름답고 재치 있는 문장 등에서 읽는 즐거움과 지적 정보를 제공함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외에도 좋은 작품들이 더 있었지만 선정의 한계로 모두 선에 넣을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수상자에게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 예심 심사위원 : 곽홍렬(대구) 박종숙(춘천)

▶ 본심 심사위원 : 이병수(위원장), 박양근, 안귀순

2012 부산수필문인의 날

◎ 행사내용

- 정기총회 및 부산수필문예 제11호/제12호 출판기념회
- '수필문학상' 및 '올해의 작품상' 시상식
- 회장 및 감사 선거
- 수필가의 밤

◎ 일 시 : 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 장 소 : 부경대학교
비스타스 소민홀(3층)

부산수필문인협회

• 연락처 : 회장 (010-9396-7703) 사무국장 (010-9517-5000)

초대의 말씀

풍요로운 가을이 서서히 깊어 가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회 주관의 '2012 부산수필문인의 날'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이에 문단의 여러 선생님을 초대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 11. 6

부산수필문인협회 회장 최 홍 식

행사순서

▶ 제1부 · 총회 및 출판기념회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박봉옥 사무국장
- 회장 인사 및 내빈 소개..... 최홍식 회장
- 축사 정영자 부산문협 회장
- 경과보고 및 업무보고 사무국장
- 감사보고 및 승인..... 조상영 감사

▶ 제2부 · '수필문학상' 및 '올해의작품상' 시상식

- 문학상 운영 경과보고 황소지 문학상운영위원장
- '수필문학상', '올해의작품상' 심사평 이병수 심사위원장
- 시상
 - 수필문학상 대상 및 본상 최홍식 회장
 - 올해의 작품상 황소지 부회장 외
- 수상소감
 - '수필문학상' 및 '올해의 작품상' 수상자 정인조 외 6명
- 수상기념 사진촬영 수상자 전원

▶ 제3부 · 회장 및 감사선거

▶ 제4부 · 수필가의 밤

- 만찬/건배참석자/회장
- 폐회선언사무국장

제3회 '수필문학상' 수상자

대상 정인조



- 등단 : 예총기쁜지 <예술계로 등단>
- 수상 : 한국수필문학상 수상
- 현재 : 한국문협 이사
- 수필집 : <멀지 않아어느 날> <약창에 비친 잔물결> <정오의 사색>

본상 김나현



- 등단 : 2004년 <수필과비평>으로 등단
- 현재 : 수필과비평작가회의,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수필문예>편집장, <문학도시> 편집기자
- 수필집 : <바람의 말>

■ 수상소감/정인조

수필은 내 삶의 이야기이자 노릇돌이다. 인생은 버릴 게 없고 그래서 선선(仙仙)한 날 수필을 쓰면 세상을 바꾸고 나를 세울 수 있다. 수필을 위해선 무엇보다 진정성이 필요하겠지만 그 시대의 한 모서리인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수필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무슨 말을 해도 수필은 시보다, 소설보다 즐겁거니와, 수필 곁에 이룩한 삽화와 침묵의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싶다.

■ 수상소감/김나현

가을에 접어들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바빠집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좋은글을 건지지 못해서일 거라 여깁니다. 나 자신이 만족할 만 한 글을 쓰고 싶습니다.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글은 읽는 이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데, 이것이다 할 소재를 찾아놓고도 글이 도무지 진척이 없을 땐 마치 절벽 앞에 선 기분이 됩니다. 그러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자 하는 마음은 늘 밀린 과제처럼 나를 당당하고 안달하게 합니다.

수필을 쓰며 보람 있을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퇴근길에 사 온 달달한 단감을 먹으며 '수필문학상'의 맛을 함께 음미하는 행복감과 설렘에 젖어 있습니다. 문학상상패를 볼 때마다 수필을 쓰는 마음가짐을 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초여름부터 시작된 두통을 동반한 어깨통증 치료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던 차에 생기를 북돋아주시는 심사위원님들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평]

금년에 3회째 맞는 부산수필문인협회 '수필문학상'은 부산지역 수필가의 문학적 역량을 제고하고 부산 수필문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협회가 계속 수여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상 심사는 이러한 소중한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응모지는 대상 3명(강중구, 이원우, 정인조), 본상 3명(김나현, 박영곤, 송경재)이었다.

본 심사에서 심사위원의 자유토론에 의거 작품의 문학성, 부산지역 및 전국의 문학적 인지도, 협회의 문학 활동과 관련된 기여도, 작가의 경륜, 수필집의 작품균질성과 최근의 창작활동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였다. 주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독해를 거친 다음 심도 있는 토론과 주요작품 정독을 통해 신중하게 심사하였다. 그 결과 대상부문에는 정인조의 『을목인생』을, 본상부문에는 김나현의 『바람의 말』을 만장일치로 선정하였다.

정인조 수상자는 위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에 가장 적합하며 수상작품은 문학적 감동과 진정성이 그리고 맛깔스럽게 형상화된 주제들이 돋보였다. 아울러 현실에 대한 예리하고 깊은 통찰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열정을 보여 주었다. 또한 김나현 수상자 역시 위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였으며 특히 뛰어난 문학적 향기와 사유, 정제된 언어 그리고 자아성찰이 주목을 끌었다.

영예로운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문학상에 응모하여 주신 다른 분들의 관심과 열성에 박수를 보내드린다.

▶ 심사위원 : 이병수(위원장), 안귀순, 박양근